

김정일 시대 통치스타일로서 ‘음악정치’

전영선(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1. 서론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 새로운 통치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는 ‘음악정치’의 등장 배경과 이념화 과정, 그리고 음악정치를 통한 전략적 통제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정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하 직책생략)이 ‘타고난 예술적 재능’을 바탕으로 ‘총대와 음악’을 결합한 ‘선군시대’의 독특한 정치방식으로 선전하고 있는 김정일의 정치방식이다. 음악정치는 ‘노래정치’, ‘선군음악정치’라고도 하는데, 노래정치라고 하는 것은 음악정치의 중심이 노래에 있기 때문이며, ‘선군음악정치’라고 하는 것은 음악정치가 선군정치와 출발을 같이한, ‘선군시대 독특한 정치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음악정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이다. 2000년 2월에 개최된 인민무력성 발표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도된 데 이어, 2000년 5월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령도자의 노래정치”라

는 제하의 글을 통해 언론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 주요 언론을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¹⁾

여러 정치스타일 가운데서 음악과 정치를 결합시킨 것은 북한의 현실적 경제상황과 김정일의 정치경력 때문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는 체제 자체의 존망을 저울질할 정도로 어려워졌다. 중국과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과 동구의 민주화는 사회주의체제를 고리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우호세력의 약화를 초래했고,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는 북한 경제의 급격한 몰락과 함께 회복 불능의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도 나름대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지만 경제 회복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경제문제로부터 유발된 여러 상황들은 사회적 통제시스템의 위기로 다가왔다. 식량난으로 인한 배급 중단과 만성적 식량 부족은 국가적 통제시스템의 와해와 인민들의 결속력 약화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의 기반을 해체할 정도로 어려워졌고, 배급도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음악(노래)’은 인민들의 결속을 강조하고 혁명의 일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음악에서 정치적 스타일의 독특성을 찾았던 데에는 1970년대 정치경력을 선전선동부에서 보낸 김정일의 경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정치활동을 시작한 김정일은 선전선동부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우면서 방송언론을 비롯한 모든 표현매체를 장악했고, 예술을 통해 주체사상을 내면화하고 의식화하였다.

김일성 주석(이하 직책 생략)의 사망에 뒤를 이은 김정일은 자신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스타일을 만들어내야 했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유훈통치 기간에는 혁명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계승자, 후계자라

1) 북한은 2006년 2월 27일 『로동신문』 사설 “우리 당의 음악정치는 선군위업 수행의 위력한 추동력”을 통해 음악정치의 중요성과 효과를 강조했다.

는 점만으로도 체제의 정당성이 확보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화해나가야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술과 정치의 결합은 김정일의 예술적 재능을 돋보이게 하면서 ‘김정일식 정치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음악정치는 “혁명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음악의 감화력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의미로 각인되면서 북한 체제의 위기를 인식하고 음악(노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가 부각,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서 예술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술은 정치의 반영이었으며, 예술을 통해 당정책을 선전하고 인민의 생활이 혁명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선동했다. 그러나 ‘음악정치’처럼 김정일의 정치스타일과 직접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예술이 정치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으며, 김정일 시대의 정치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는 음악정치의 등장 배경과 이념화 과정, 그리고 음악정치의 효과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김정일 ‘음악정치’의 본질과 특색, 한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으로서 예술과 정치

북한 문화예술은 사회의 필요에 의하여 존재한다. 사회주의체제에 서 예술은 사회발전과 분리되어 논의된 적이 없었다. 예술은 사회와 관련되어 사회발전을 위해 복무할 때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다. 예술이 언제나 정치와 연관되어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정치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서 예술도 변화 과정을 밟아왔다.

북한 예술은 해방 이후 북한 체제가 확립되어가던 ‘평화적 건설 시기’를 지나면서 점차 체제 종속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북한 정권수립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회주의체제와 사상에 대해서는 일반 민중은 물론 지식인 그룹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의식으로의 의식개변은 사회주의체제 확립의 관건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47년 1월에 있었던 문학예술총동맹 제1차 확대 상임위원회에서는 문학예술 창조사업에서 작가들의 ‘책상 우의 사무’에 종사하는 경향을 극복하고 당정책에 따라 현장에서 경험한 사실들을 토대로 한 창작을 강조하면서 ‘문단주의’의 극복과 사회주의 의식 확산을 추진해나가기 시작하였다.²⁾ 이후 문학의 낭만성과 사상성에 대한 북한 예술계 내부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고 반김일성파에 대한 숙청작업이 진행되면서 소련파, 남로당파 일정한 연분이 있었던 작가예술가들은 완전히 숙청되었다. 1956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제2차 조선작가대회는 스탈린의 사망과 소련의 ‘해빙’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지만 개인숭배나 독단주의를 비판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입장을 수용하면서 점차 주체식 문예이론이 강화되어갔다.³⁾

이처럼 문학예술이 당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면서 문학예술은 당 정책의 신속한 반영과 내적 호소력을 통한 전달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해방 이후 북한 문학예술계의 논쟁은 당정책으로부터 예술적 자유

2)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59), 1991~1993쪽.

3) 박상천, “주체사상의 형성과 북한문학,” 『한국언어문화학회』, 27집(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155~157쪽 참조.

를 넓히기보다는 당정책의 충실한 전달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북한 문학예술은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에 따라 주체사상의 체제 확립에 전념하게 된다. 예술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주체문예 이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항일 무장혁명 투쟁 당시 김일성이 창작했거나 창작을 지도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 예술의 전형으로 확립되었다.⁴⁾ 이후의 문학예술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위한 예술로 역할이 제한되었고, 김정일은 예술을 통해 정치 기반을 구축해나갔다.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는 김정일의 정치적 출발점이었으며,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발판이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실질적으로 모든 예술단체와 작품에 대한 심사과 검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학예술 창작이나 선전선동 일체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통제하면서 이념을 창출하고 인민홍보를 위한 모든 역할을 담당한다.⁵⁾ 김정일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으로 관련 매체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예술을 통한 주체사상의 이념화, 체계화 작업을 지도했다.

예술이 정치적 상황을 위해 동원되는 과정 속에서는 시기별로 강조되었던 장르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예술 장르에 대한 인식 차이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장르별 특성에 의한 것이었다. 북한의 시대별 정치적 상황과 예술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4) 북한이 혁명문화예술의 기원을 항일무장혁명 시대로 규정하고 이 불후의 명작들을 대상으로 1970년대 김정일이 혁명적으로 발전시켜 주체시대의 문화예술을 완성시켰다고 평가한다. 이것을 혁명예술의 계승적 발전으로 평가한다.
- 5)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제와 문예이론』(서울: 역락, 2002), 18~19쪽.

1960년대 유일사상체계 확립과정에서는 영화가 중심 매체였다. 수령형상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수령형상 창조를 전문으로 담당한 기관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산하 백두산창작단이었다. 백두산창작단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투쟁과 관련한 영화만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전문창작단으로 김일성 주석과 가계 일가의 인물을 통하여 수령형상 문제를 제기했다.⁶⁾ 백두산창작단의 소재는 백두산을 배경으로 한 항일 무장투쟁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김일성 일가의 혁명역사를 신비화하고 우상화하면서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해나갈 수 있었다. 후일 수령형상 문학전문창작단인 ‘4·15문학창작단’의 본보기 단체가 되었다.

1960년대 영화가 선전선동의 중심 매체가 된 것은 영화가 다른 어떤 장르보다 매체의 전달력과 호소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편의 영화는 복제가 손쉽고 영사막과 환등기만 있으면 이동 상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영화라는 매체는 대중속으로 신속히 파고들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⁷⁾

수령형상체계가 확립된 이후 후계자로서 김정일이 부각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혁명가극이 중심매체로 부각되었다. 혁명가극 <피바다>의 창조를 통하여 혁명예술의 전형을 만들었다. 혁명가극은 북한식 오페라로 화려한 무대장식과 뛰어난 연기력, 가창력이 결합된 고도의 예술장르이다.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효과를 발휘할

6) 백두산창작단은 문예총 위원장을 지낸 백인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총장 엄길선, 북한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 리종순 등으로 구성되었다. 당대 최고의 예술인들이 참여한 백두산창작단은 영화뿐만 아니라 북한 문화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7) 서정남, 『서정남의 북한영화탐사』(서울: 생각의나무, 2002), 머리말 참조.

수 없어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창작할 수 없다. 즉, 혁명가극은 북한 문화예술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장르로서 미학적 완성도와 예술성을 강조할 수 있는 장르이다.

1980년대 중반 전자음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식 전자음악’이 강조되었고 왕재산경음악단과 생활가요를 전문으로 하는 보천보 전자악단이 만수대예술단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예술단체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강조되기 시작한 1988년 12월 19일 평양예술단에서 민족가극 <춘향전>을 창작하면서 민족가극이 주목받았다. 민족가극은 혁명가극의 형식에 민족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부각과 함께 민족을 소재로 한 가극의 새로운 전형이다. 민족가극을 통하여 혁명적 전통과 민족적 전통을 결합한 정치적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경희극이 부각되고 있다. 경희극은 혁명이나 투쟁과 같은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재를 바탕으로 한 가벼운 희극이다. 경희극 창작에서 주목받는 단체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소속인 4·25예술영화촬영소이다.⁸⁾ 경희극 창작이 조선인민군 산하 예술단체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선군시대의 예술이라는 상징성으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김일성 사망 이후 ‘혁명문학’에 이어 ‘선군’이 추가된 ‘선군혁명문학’이 등장하면서 문학예술에서 선군시대에 맞는 예술적 전통이 수립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도 군 산하 예술단체를 통한 경희극 창작은

8) 4·25예술영화촬영소는 1959년 창립 이래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함께 북한의 양대 영화촬영소이다. 선군정치가 강조되면서 군예술 단체로서 경희극 공연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민상을 수상한 <동지>를 비롯하여 <약속>, <축복>, <편지>, <웃으며 가자> 등의 경희극 공연이 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이루어졌다.

선군시대 예술창작 주체로서 군이라는 상징성과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넣는 웃음을 중심으로 하여 2000년 이후 북한 예술이 생활 속에서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군문화의 일반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음악정치’의 등장 배경과 이념화 과정

1) 문화통치스타일로서 ‘음악정치’

음악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김정일의 영도예술’이라는 점이다. 북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노래정치’의 개념은 “조선은 노래가 많은 나라, 노래로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나라”로서 음악정치는 노래를 사상이나 총대처럼 중시하는 김정일 총비서의 영도예술로 규정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그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시고 음악과 정치가 가장 완벽하게 결합시키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⁹⁾

조선은 노래가 많은 나라, 노래로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나라이다. …… 노래를 사상이나 총대처럼 중시하시는 독특한 노래정치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은 위대한 김정일 령도자의 출중한 령도예술이다. …… 독특한 노래정치로 나라와 민족을 승리로 이끄

9) 『로동신문』, “우리 당의 음악정치는 선군위업 수행의 위력한 추동력”(사설), 2006년 2월 27일.

시는 그이의 령도로 조선인민은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 세울 것이다.¹⁰⁾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 빛나는 음악정치에 매혹되어 그이에 대한 절대적 지지와 숭배심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¹¹⁾

음악정치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북한 예술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음악도 예외가 아니다. 음악은 인민들에게 혁명을 교양하고 민족성을 확인하는 예술이다. 주체음악 창작의 기본 방침은 김일성이 처음 언급하고 김정일에 의해 확대되고 구체화되었다.

김일성은 1946년 8월 8일 “음악예술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교시를 통하여 “음악은 민족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혁명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음악은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고 새 조국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들의 환희와 기쁨, 긍지와 자부심, 혁명적 열정을 반영한 참말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음악의 방향을 규정했다.¹²⁾ 북한에서의 모든 음악활동은 김정일과 당에서 제시한 범위, 즉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와 음악의 혁명화, 주체사상화의 요구라는 안에서 인민들에게 공산주의에로의 투쟁을 고무시키는 기본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10) 『조선중앙통신』, “령도자의 노래정치,” 2000년 5월 29일.

11) 서희숙, “승리의 신심과 라관을 안겨주는 노래를 들으며,” 『조선예술』(2001년 2호).

12) 『김정일 연구(II): 분야별 사상과 정책』(서울: 통일연구원, 2002), 303쪽.

음악정치가 김정일의 독특한 정치방식으로 강조되는 것은 후계자 이면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김정일의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서 김정일의 예술영도에 초점을 둔 것이다. 자기식의 통치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김정일 체제의 공식적인 등장을 상징한다.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위상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60~70년대였다. 이후 지속적인 후계자 과정을 거쳤다. 1981년 후계자 호칭이 사용되었으며, 1986년 5월 공식화되었고, 1991년에 조선인민군최고사령에 올랐으며, 1992년 4월 군 ‘원수’ 칭호, 1993년 4월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임용되면서 김일성과 함께 실질적인 최고통치자의 한 사람으로 군림해왔다. 김일성 사망 이후 주석직 계승이 예상되었던 김정일은 그러나 이후 3년여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김정일의 최고지도자 등장은 정치적 연속성과 단절성의 과제를 안는 문제이다. 혁명업적의 계승이라는 측면의 연속성과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위상 강화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시대의 이념을 제공한 주체로서 출발부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의 과정은 연속성과 차별성, 김정일식 정치의 특색을 내세워야 했다. 김정일은 ‘광폭정치’나 ‘인덕정치’ 등의 용어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예술이나 인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위상이 강화된 이후 문학예술 분야에서 김정일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지도보다 국가지도자로서 위상의 강화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일이 영도예술의 통치방식으로서 예술을 선택했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예술지도 경험에서

통치방식의 특징을 찾았던 것이다.¹³⁾

새로운 정치방식의 모색은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김정일 시대의 문화정체성 형성과정과 결합된 문제였다. 2002년 7월 11일 『로동신문』에서는 “한편의 민족가요를 중심으로 민족의 어제와 오늘과 래일의 역사를 하나로 관통시키고 전 민족을 하나의 선을 속에 품어 안아 시대의 제일 복판에 환하게 내세워준 그런 위대한 명장, 걸출한 음악정치가, 애국애족의 화신은 역사에 있어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김정일을 ‘음악정치가’로 부르기도 했다.¹⁴⁾

음악과 정치, 총대와 음악을 완전무결하게 결합시킨 지도자를 세계는 아직 모른다. 그것은 오직 세계 정치원로이시며 음악적 재능을 천품(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 필자주)으로 타고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구현하실 수 있는 완전히 독창적인 우리식 정치방식이다.¹⁵⁾

김정일은 자신의 정치적 특색을 ‘선군’에서 찾으면서 선군시대에 맞는 정치형태를 노래에서 추구했던 것이다. 특별히 음악과 정치를 결합시킨 것은 김정일의 오랜 정치활동이 문학예술 분야였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김정일은 오랜 기간 동안 선전선동부장으로서는 예술분야에 대한 지도를 했던 만큼 선군과 예술을 결합하면서 일상화할 수 있

13) 김강혁, “힘 있게 나뭇기라 선군시대 음악정치의 기폭이여,” 『조선예술』 (2003년 1호). “선군의 위력을 감정정서적으로 안받침하여 오늘과 같은 혁명의 승리를 안아온 음악정치의 위력에서 우리는 선군정치와 함께 장군님의 음악정치의 정당성과 그 위대성을 똑똑히 보고 있다.”

14) 송미란, “태양민족의 아리랑”(정론, 『로동신문』, 2002년 7월 11일).

15) 김강혁, “힘 있게 나뭇기라 선군시대 음악정치의 기폭이여,” 『조선예술』 정론(2003년 1호).

는 음악은 더없이 좋은 분야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음악은 선군의 경직성을 유연한 이미지로 보완해준다는 장점도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음악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미래에
로 지향시킨다고 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음악과 노래는 ……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을
수 있고 그들에게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줄 수 있다.”¹⁶⁾

음악정치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음악이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음악이 인간학’이기 때문이다. 즉, 음악에는 인간의 사상과 정서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기에 음악과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주며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을 통한 혁명성의 고취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음악을 통한 혁명의식 고취는 북한 정권수립기부터 결정된 방향이었다. 김일성은 1966년 4월 30일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를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 작곡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혁명가요의 창작 지침을 내리는데,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적군을 와해시키는 사업에서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대중의 사상과 정서에 맞는 음악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음악정치가 김정일만의 독특한 정치방식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 정치사에서라도 음악을 활용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음악을 전면적으로 정치와 결합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세계 정치인들이 음악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도 음악과 정치를 심도 있게 결합

16) 『조선예술』(2005년 1호), 36쪽.

시키지 못한 것은 음악적 재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음악이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사상이 깊고 감정이 강렬해야’ 하는데, 김정일은 천품의 음악적 재질이 있기에 ‘음악의 본성과 사명에 대한 주체적인 사상과 이론’을 내놓고 발전 방향을 밝혀줄 수 있었고, 음악과 정치를 하나로 결합한 음악정치를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점에서 음악정치의 특색과 김정일의 위대성을 찾고 있는 것이다.

2) ‘음악정치’의 이념화 과정

실행적 측면에서 음악정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군문에 단체의 활성화이다. 선군시대 음악정치의 중심은 ‘선군시대 나팔수’라 불리는 조선인민군 국가공훈합창단이다. 조선인민군 국가공훈합창단은 인민군 내의 종합공연단체인 조선인민군협주단 소속의 합창단이었었는데, 선군음악정치가 시작되면서 별도의 단체로 독립한 것으로서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문예단체로 주목받고 있다.

음악정치가 언론에 게재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0년 5월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령도자의 노래정치”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북한 문화예술 관련 문건을 통해서는 이보다 먼저 음악정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97년 8호 『천리마』에 남조선음악평론가 손정준의 기고문으로 실린 “음악중시의 위대한 정치가”에서 ‘음악중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1998년 3호 『조선예술』에서 김강혁이 쓴 “음악과 정치” 이후 줄곧 사용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조선예술』 5호에 실린 박영호의 “주체의 음악예술발전에 쌓아올린 불멸의 고전”과 『조선예술』 1999년 11호에 김강혁의 “정치와 음악의 호상관계” 등의 글이 실려 ‘음악정치’의 이론화가 진행되고 있음은

시사하였다.

음악정치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선군시대의 정치방식으로서 음악과 군의 관련성이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음악과 선군의 결합으로서 의미가 강조된 것은 2000년 2월 7일에 있었던 ‘김정일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성 토론회’의 이후였다.¹⁷⁾

김정일의 예술영도 방식으로서 음악정치가 강조되면서 음악정치의 출발 시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2003년 1호 『조선예술』에 실린 김강혁의 “힘 있게 나뭇기라 선군시대 음악정치의 기폭이여”에서 김정일이 1995년 조선인민군 214포병부대 산하 다박술 초소를 방문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선군시대 혁명영도의 개시음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박술 초소는 1993년에 발표된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최준경 작사, 리종오 작곡)의 가사 첫머리에 나오는 곳이다.¹⁸⁾ 김정일의 다박술 초소 방문과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에 대하여 2002년 5월 9일 『조선신보』에서는 “선군혁명 영도는 내가 다박술 초소를 찾은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래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에 다박술 초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노래는 선군혁명 영도의 개시음악이나 같습니다”¹⁹⁾고 보도했던 것 등을 근거로 ‘음악정치’ 출발을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같은

17) 통일부, 『주간동향』 473호. 2월 8일 중앙방송보도.

18)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다박술 초소도 찾아주시고/ 하늘의 뱃길도 함께 가셨네/ 그 품에 병사들 모두 다 안겨/ 행복의 이야기꽃을 피우네/ (후렴)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 제일이야 제일이야 아 제일이야, 2절: 향도의 그 손길 한번 드시면/ 천만의 어깨에 나래가 돋네/ 그 품에 병사들 영웅이 되어/ 끝없는 자랑을 노래한다네/ (후렴)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 제일이야 제일이야 아 제일이야, 3절: 호탕한 그 웃음 들을 때면은/ 통일의 축포가 어려 온다네/ 그 품에 병사들 신심은 넘쳐/ 언제나 승리만 펼쳐가리라/ (후렴)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 제일이야 제일이야 아 제일이야.

19) 『연합뉴스』, “北가요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2002년 5월 26일.

1995년 1월 1일로 보고 있다.²⁰⁾

그러나 문학예술 관련 여러 문건에서 ‘음악정치’와 관련된 논의가 오래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기원을 앞당기고 있다. 『천리마』 2001년 12호에서는 김정일이 1982년 12월 17일에 만수대예술단 음악가들과의 자리에서 “음악의 사명은 정서적으로 정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음악을 모르면 정치를 모른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으며, 『조선예술』 2004년 11호에는 황순희의 “동지애로 충만된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혁명적 음악활동”이 김정일의 음악적 재능의 바탕이 되었다고 하였다. 『조선예술』 2004년 10호에는 “항일의 여성 김정숙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음악적 천품을 찾아내시고 귀중히 지켜주시었다. 음악적천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음악정치를 펼쳐나가실 수 있는 든든한 기초로 되었다”²¹⁾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대목은 음악정치의 출발이 1982년으로 혹은 그 이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4. ‘음악정치’의 전략적 통제 효과

1) 고난극복의 심리적 통제 효과

‘음악정치’는 다른 한편으로 ‘노래정치’로도 불린다. 음악정치의 핵

20)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계승하시여 뜻 깊은 설날아침 다박솔초소에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신 때로부터,” 『조선예술』(2005년 1호), 12쪽.

21) 황순희, “위대한 음악정치의 터전을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조선예술』(2004년 10호), 23쪽.

심이 노래에 있기 때문이다. 음악 가운데서도 노래를 중시하는 이유는 노래가 생활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음악정치를 설명하면서도 “노래로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고 강조하는 것도 노래의 일상성 때문이다. 일상을 통해 노래가 할 수 있는 여러 기능 가운데 노래의 심리치료적인 기능을 정치적 통제 기제로 활용한 것이다.

노래의 심리치료적인 기능은 김일성의 사망과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살리기 내세운 구호의 하나였던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와 관련된다. 문학예술 분야에서는 경희극을 비롯하여 ‘경희극적 양상’으로 표현되는 생활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의 창작이 확대되는 것이나 웃음경연대회 등이 분위기 쇄신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²²⁾

김일성 사망 이후 김일성 추모 노래들이 대거 등장했던 것은 정치적인 이상화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심리적인 효과도 못지 않았다. 즉,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도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비롯하여 ‘함께 있다’, ‘따르렵니다’, ‘길을 가렵니다’, ‘그리운’ 등의 제목이 달린 노래들을 부르면서 생활 속에 내면화된 수령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이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령도자와 뜻을 같이하고 불바람 휘몰아쳐 와도 령도자와 생

22) 4·25 예술영화촬영소를 중심으로 한 경희극 작품의 창작보급이나 2001년부터 평양예술극장을 중심으로 한 코미디물의 공연, 밝고 빠른 템포의 노래 보급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북한에서는 희극배우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국립희극단이 생겨난 것도 1991년이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국립희극단, 조선인민군협주단을 중심으로 한 경희극이 창작되었으며, 전국 웃음경연대회가 개최되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웃음을 찾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를 같이하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다진 맹세 변치 않는 것이 조선의 혁명가들의 동지애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는 김혁형의 열혈의 동지, 차광수형의 신념의 동지가 되어야 한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가 21세기의 영원한 동지애의 노래로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 우리는 당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광복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게 해야 한다.²³⁾

여기서 언급한 ‘난관’이란 물론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의미한다. 고난의 시기는 처음이 아니라 혁명의 주요 시기마다 있었고, 혁명의 주요 시기마다 노래가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명위업을 성취해왔다는 것이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인민은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높이 부르며 수령의 두리에 일심 단결했고 『사향가』, 『반일전가』의 노래 우렁차게 울리며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광복위업을 성취했다. 새 조국건설과 전쟁의 나날에도 『발같이 노래』, 『승리의 5월』, 『결전의 길로』, 『전호 속의 나의 노래』를 부르며 인민들과 군인들은 조국건설과 조국수호에 힘 있게 떨쳐나섰다.²⁴⁾

김정일의 예술영도는 해당 시기의 정치사회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현 시대 북한이 처한 난관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23)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사설,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2001년 1월 1일.

24) 『조선중앙통신』, “령도자의 노래정치”, 2000년 5월 29일.

한다. 2000년을 전후하여 북한이 처한 어려움은 대내외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외교적 고립과 체제전환에 대한 위기의식이며, 대내적인 어려움이란 국가 통제력의 약화와 탈이념적 성향에 대한 우려였다. 음악정치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노래를 통해 하나임을 확인하면서 서로를 믿고 극복해나가는 것이다.

…… 오 피눈물의 바다
 딛고 설수 없는 것이 물이라건만
<우리는 맹세한다>
 피끓이는 이 노래 부르며
 우리는 눈물의 바다에서 일떠섰고

 흰눈 덮인 다박솔초소에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계승하여
 선군정치의 포성 올리신 장군님 우러러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환희와 걱정의 이 노래 부르며
 우리 걸어갈 승리의 길을 보았거니

 고난의 그 나날
 그 수많은 발전 언제들을
 우리 황금으로 쌓았던가
 선군시대 자랑 높은 기념비들
 우리 과연 배부른 몸으로 일떠 세웠던가

그것은 노래!

노래를 부르면

심장이 굳세지고 인생이 아름다워지더라

노래를 부르면 위훈의 도약대로 되더라…….25)

선군정치가 시작된 이래로 “쏟아지는 폭우와 덮쳐드는 해일” 속에서도 “얼지 않고 젖지 않던 우리의 노래”, “조여 댄 허리띠 불 꺼진 거리와 벗어선 공장”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멎지 않았던 우리의 노래”가 있었기에 10년의 세월 속에 고난을 이기고 “이 땅위에 무수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2)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일상적 구현 효과

음악정치는 한편으로 민족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음악정치를 설명하면서 “조선은 노래가 많은 나라”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민족제일주의’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음악정치는 민족적 정서에도 맞는 정치방식임을 강조한다.

예술장르 가운데 특히 음악은 북한예술이 추구하는 민족주의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내는 중요한 장르이다. 다른 예술장르에 비해 음악에는 민족적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기 때문이다. 음악이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아야 한다는 것은 민족생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음악만이 자기 민족의 심리적 특성에 맞고 민족적 감정과 구미에 맞는 음악이라는 것이다.

25) 리진철, “우리는 선군의 노래 부르며 이겼다”(시), 『조선예술』(2005년 1호), 9쪽.

김정일은 『음악예술론』에서 통속적 음악을 강조한다. ‘통속적 음악’이란 상업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성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게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의미한다.²⁶⁾ 그런데 음악은 세계 여러 민족 사이에서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나라마다 사람의 감정과 정서가 서로 다른 만큼 음악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민들이 노래를 쉽게 부르기 위해서는 민족적 정서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음악정치에는 민족적 정서에 맞는 노래를 찾아나가는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²⁷⁾

노래를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에 맞게 지어야 합니다. 노래를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에 맞게 짓는 것은 음악예술작품 창작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음악예술을 우리식으로 주체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에 맞지 않는 노래는 우리식의 노래가 아니며 그런 노래는 우리 인민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감정에 맞지 않는 노래는 좋아하지 않으며 부르지도 않습니다. 인민들이 즐겨 부르지도 않는 노래는 인민적인 노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선율이 맑고 유순하며 밝고 선명하고 부드럽고 은근한 노래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노래를 하나 지어도 우리 인민의

26) 음악의 민족성과 예술성에 대해서는 전영선, “북한의 예술관과 남북문화 이질감 극복방안”, 『서울평양학회보』, 제1집2호(서울평양학회, 2002. 12) 참조.

27) 김정일, 『음악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9쪽. “지난 시기 어떤 사람은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면서 음악은 민족과 국가의 관계를 초월한 ‘범세계적인 음악’으로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세계주의를 고창하는 현대부르조아리론가들의 반동적인 견해로부터 출발한 하나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고 나라마다 사람의 감정과 정서가 서로 다른 것만큼 음악에 국경이 없을 수 없다. 물론 음악의 언어는 민족들 사이에 공통되는 점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음악에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아무런 계선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족적 감정에 맞게 지어 누구나 즐겨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²⁸⁾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의 확립은 민족성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으며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민족성의 역할을 비상이 높게 했다.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즐겨 부르는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민은 누구나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²⁹⁾

북한에서 작가, 예술인들에게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주제로 한 가요를 더 많이 창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당원과 근로자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고취시키는 데 가요가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김정일의 ‘음악정치의 생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민족적 정서를 살리되 현재는 과거와는 다른 주체시대에 살고 있기에 현재 인민들의 감성에도 맞아야 한다. 이것이 곧 현 시대 인민들의 사상과 정서에 맞다고 강조하는 ‘주체시대의 음악’이라는 것이다.

3) ‘수령 결사옹위’의 정서적 교양 효과

2001년 2월 17일 평양방송은 “한계 없는 무자비한 총폭탄이 우리의 군가”라며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몰락할 때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

28) 김정일,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 음악 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대화”, 1990년 2월 25일.

29)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1997년 6월 19일.

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내용의 가요 『사회주의 지키세』로 주민을 뭉치게 했고 제국주의가 '핵 몽둥이'로 위협을 가했을 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는 노래로 이에 대항했다고 강조했다. 음악정치가 정치적으로도 유용한 것은 “노래를 사상이나 총대처럼 중시”하는 사상을 통하여 “총대와 노래의 결합”한 결과 북한군을 “일당백의 강군”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총포성 없는 전쟁”에서 연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수령과 수령 결사옹위의 주제는 선전선동 매체로서 북한 음악의 본질적 기능이다. 그러나 개념화된 용어로서 ‘음악정치’에서는 수령형상과 수령 결사옹위에 대한 주제성, 승리에 대한 확신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혁명의 노랫소리는 자랑스럽고 뚝뚝하게 울릴 것이며, 이 노래와 함께 우리 인민도 언제나 백전백승할 것이다.³⁰⁾

북한 음악에서 김정일에 대한 묘사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자애로운 인물’, ‘인민의 아버지’로서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단한 담력과 용기’를 지닌 ‘탁월한 군사전략가’, ‘령도자’로서 정치사상적인 지도자로 묘사하는 것이다. 김정일 관련한 가요를 주제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애로운 인물’, ‘인민의 아버지로’로 묘사한 노래이다. 『사랑의 미소』, 『어머니의 눈빛』,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립습니다』, 『우리

30) 김강혁, “정치와 음악의 상호관계,” 『조선예술』(1999년 11호).

의 아버지인 김정일 원수님, 「우리 아버지」 등이 있다.

둘째, ‘탁월한 군사전략가’로 묘사하면서 충성을 고취하는 노래이다.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그이는 우리의 운명,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등이 있다.

셋째, ‘위대성’과 ‘영도력’ 등을 주제로 한 가요이다. 「사랑하자 나의 조국, 「정일봉의 우뢰소리, 「동지가 많으신 분, 「장군님의 축복, 「조선의 행운,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 「정일봉에 안개 흐르네, 「최고사령관동지 건강을 축하함,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등이 있다.

넷째, 결사옹위를 강조한 노래이다. 「우리 장군님 받들자, 「우리 장군님 모시리」 등이 있다.

다섯째, 건강을 기원하고 수령복을 선전하는 노래이다. 「장군님만 건강하시면, 「장군님의 모습, 「그이의 모습」 등이 있다.

김일성을 주제로 한 가요와 김정일을 주제로 한 가요는 가창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김일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흠모의 정으로’, 또는 ‘장중하고 신심 높이’ 부르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하여, 김정일을 주제로 한 가요는 대부분 ‘박력 있게’, ‘신심에 넘쳐 뜨겁게’ 등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다.

김정일 관련 가요의 특징은 ‘수령형상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문학예술에서 수령을 형상할 때 적용되는 원칙인 ‘수령형상 창조’ 원칙과 후계자를 형상할 때 적용되는 ‘수령의 계승자 형상 창조’ 원칙이 있다. 기본 원칙은 같지만 ‘수령의 계승자형상창조’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은 수령의 혁

명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수령의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강조해왔으며, 김일성이 가졌던 ‘주석’이라는 직책 자체를 없애 주석이라는 직책을 김일성 고유의 직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후계자로서 김정일의 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유훈통치 기간이 끝나고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후계자로서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 가요에서 ‘수령형상 창조’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1990년대 들어 김정일 형상화가 ‘수령형상 창조’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수령의 후계자형상 창조’라는 별도의 용어로 구분했던 것에서 나아가 김정일을 수령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³¹⁾

실질적으로 김정일을 수령으로 형상화하면서 수령옹위의 정신을 강조한 내용의 가요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음악정치가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되기 시작한 1999년을 전후해 불린 노래의 대부분이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이나 ‘6·25’의 시기에 주석을 따르고 추모했던 곡들로, 1960~70년대 불렸던 ‘수령옹위’를 주제로 한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령옹위 주제의 가장 대표적인 곡으로 언급되는 작품은 3대 혁명가극의 하나인 <당의 참된 딸>의 주제가인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다.³²⁾

31) 임순희,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1), 32쪽.

32) 이들 노래 중에 가장 주목받는 곡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2001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영원한 동지애의 노래로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부를 노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노래가 바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입니다.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에는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을 그리며 끝까지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 감정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전당, 전군, 전민이 21세기에도 계속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선율이 온 강산에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2000년대에도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인공과 같은 수령송배,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체현자들이 수많이 나와 일심단결의 대오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³³⁾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 주목을 받는 것도 이 노래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상징성 때문이다.

첫째,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제가이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은 3대 혁명가극³⁴⁾ 가운데 유일하게 6·25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른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제국주의와의 판가리 싸움’으로 불리는 6·25는 북한 인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반미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즉, 북한의 혁명예술은 일제를 대상으로 한 작품은 많지만 미국을 대상으로 일반인들에게 반제의식을 고취한 작품은 많지 않는데,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은 반제의식을 고취하는 좋은 소재가 된다. 강연옥이라고

33) 『로동신문』,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적 세기이다,” 2001년 1월 24일.

34) 3대 혁명가극은 북한의 혁명가극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혁명가극 <피바다>, <꽃 피는 처녀>, <당의 참된 딸>을 일컫는다. 이들 작품에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를 묶어 5대 혁명가극이라고도 부른다.

하는 실재인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갖은 고난과 시련을 뚫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다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수령을 믿고 따른다는 내용이 북한 인민들이 처한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당의 참된 딸>은 ‘총대가극’이라고 불린다.

둘째, 선군시대에 맞게 군 예술단체인 조선인민군협주단의 대표 작품이라는 상징성이다.

셋째, 김정일이 직접 작사·작곡한 작품이라는 점이다.

또한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에서 불렀던 가요 『우리의 붉은기 영원히 날려가리』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억세계 전진해온 조선 혁명의 어제와 오늘을 감명 깊게 펼쳐 보여주는 ‘새 세기 붉은기의 노래’라고 소개되었다. 이 노래는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빨치산 대원들이 ‘붉은기’를 목숨으로 지켰으며 해방 이후에도 혁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혁명의 정통성과 계승을 강조하는 것도 수령옹위의 주제를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4) 생활문화의 다양화로서 내적 불만 해소 효과

음악정치는 생활 속의 어려움을 노래로 극복해나간다는 점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생활문화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내적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2000년 이후 북한의 생활문화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생활문화의 다양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문예의 다양화는 변화된 인민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다름대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이다.

전략적 통제로서 생활문화의 다양화가 추진되는 것은 북한 사회의

인적 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 때문이다. 즉, 김정일 세대의 등장과 함께 북한 내부에서도 인적 구성원이 변화되었으며, 혁명후 세대, 전후 세대의 등장은 이전의 수령중심의 혁명관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의 대응으로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생활문화를 다양화하여 사회적 일탈을 예방하는 것이다.³⁵⁾

북한에서 새 세대란 전후 세대, 혁명후 세대들로서 고난의 행군 기간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혁명세대들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졌다. 이들은 식량부족 시기를 어렵게 견디면서 당의 계획경제에 대한 적극 참여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세대적 특징을 나타낸다. 식량부족으로 인한 식량난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상당히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에서 식량배급의 중단은 북한 인민들에게 당에 대한 신뢰감, ‘당이 먹여 살린다’는 확고한 신념체제를 흔드는 것이었다. 여기에 식량부족으로 인한 식량유민의 급증은 상대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확대시켰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부로부터의 문화적 유입 현상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외부적 문화침투를 우려하는 ‘모기장’ 이론이나 문화 침투가 제국주의 침투의 선봉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정신 무장을 강화해 나갔다.

인민들의 사상교육 사업에서도 주제를 잃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미래에는 승리한다는 신념을 심어주어야 했다. 간고했던 항일무장혁명투쟁 시기 ‘고난의 행군’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35) 생활문화의 다양화는 1980년대 전자음악의 수용으로부터 본격적인 출발점을 잡을 수 있다. 즉, 이전까지 전자음악에 대해 부정적인 북한이 전자음악을 수용하여 변화된 인민의 정서를 반영했던 것이다.

미국의 침략전쟁에서도 승리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수령을 믿고, 이긴다는 신념을 갖고, 동지와 함께 간다는 것이었다. 『동지애의 노래』로 대표되는 동지애 주제의 작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0년 이후 강조되고 있는 주제이다.³⁶⁾

생활부문에서도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했다. 문화의 다양화를 통해 내적 불만을 수용하고 일탈이 없도록 해야 했다. 생활소재 가요의 창작이나 남녀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의 보급, 경희극 등의 가벼운 생활소재 문화를 다양화하고, 바둑이나 볼링, 전자오락, 서예 등의 생활문화 다양화로 나타났으며, 음악정치는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되었다. 노래를 생산현장과 결합하여 노래 보급원 임명, 노래수첩 지침 등의 상시적인 가요 보급사업과 함께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경연’ 등의 행사를 통해 노래를 통해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고 근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음악정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인민들의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송가나 혁명군가보다 생활가요나 계몽기가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음악정치의 효과 여부는 음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이상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³⁷⁾

36) “김정일 평도자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동지애의 노래』, 『기다렸습니다,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와 같은 노래를 부르시고 들으시며 나라와 민족 앞에 지닌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신다”(『조선중앙통신』, “평도자의 노래정치”, 2000년 5월 29일).

37) 이미은, “김정일의 ‘음악정치’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4), 52~54쪽.

5. 결론

이상으로 북한 체제의 위기 대응전략으로서 음악정치에 대해 살펴 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음악정치는 ‘노래로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예술영도 방식’을 의미한다. 이 음악정치의 특성은 대상으로서 인민을, 내용으로서 고난 극복을, 형식으로서 민족성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음악정치는 김정일의 특유의 정치적 스타일의 하나로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물적 대안이 없는 문화적 대응양식으로 제시되었다.

체제의 위기 상황마다 등장하는 북한 특유의 정치방식들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같은 외부적 문제에 대한 관심사를 내부로 돌리면서 북한 사회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북한 연구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였던 북한체제의 붕괴설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10년을 넘기면서 북한 사회체제의 내구력에 대한 문제로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북한 체제의 내구력에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체제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체제를 지탱하는 문화적 시스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경제지표와 같은 사회적 통계와 지표만으로 북한 사회를 설명하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음악정치는 바로 북한 사회 체제 유지의 내면적 유연성과 내구성을 이루는 원천으로서 기술적 문화지배 전략으로 등장한 것이다. 음악정치의 출발을 선군정치의 출발과 같은 선상에 놓고 선군음악정치를 강조하는 것도 선군의 정치사회적 경직성과 제도적 엄격성을 음악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연화하고 내면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의 음악정치는 이러한 내구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문화정책인 철저한 국가관리와 통제하에서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세대의 등장에 따라 혁명성 일변도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관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문화의 영역을 다양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대외적인 문화침투를 방어하면서 체제 안에서 대안을 찾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완전한 통제적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체제의 변화를 경험한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울 것이다. 문화적 욕구는 불가역적이다. 과거와 같이 문화향수층으로서 인민대중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문화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 폭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 접수: 3월 15일 / ■ 채택: 3월 28일

참고문헌

- 고영환, 『우리민족 제일주의론』(평양: 평양출판사, 1989).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59).
- 김강혁, “정치와 음악의 상호관계,” 『조선예술』(1999년 11호).
- _____, “힘 있게 나뭇기라 선군시대 음악정치의 기폭이여,” 『조선예술』(2003년 1호).
- 김일성, 『교육과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 김정웅, 『종자와 작품창작』(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_____, 『주체적 문예이론의 기본·2』(평양: 문예출판사, 1992).
-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당중앙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2월 31일.
- _____,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 - 음악 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2월 25일.
- _____,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1997년 6월 19일.
- _____,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_____,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음악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9).
- _____,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로동신문』, “우리 당의 음악정치는 선군위업 수행의 위력한 추동력”(사설), 2006년 2월 27일.
- _____,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세기이다,” 2001년 1월 24일.

-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사설,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2001년 1월 1일.
- 리진철, “우리는 선군의 노래 부르며 이겼다”(시), 『조선예술』(2005년 1호). 문화체육부, 『김정일 문예관 연구』(서울: 문화체육부, 1996).
- _____, 『북한식 문화예술 창작 방법론 연구』(서울: 문화체육부, 1998).
- 박상천, “주체사상의 형성과 북한문학”, 『한국언어문화학회』, 27집(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1-5)』(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 _____,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리론 철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 서연호·이강렬, 『북한의 공연예술(I)』(서울: 고려원, 1990).
- _____, 『북한의 공연예술(II)』(서울: 고려원, 1990).
- 서정남, 『서정남의 북한영화탐사』(서울: 생각의 나무, 2002).
- 서희숙, “승리의 신심과 라관을 안겨주는 노래를 들으며,” 『조선예술』(2001년 2호).
- 송미란, “태양민족의 아리랑”(정론), 『로동신문』, 2002년 7월 11일.
- 신대철, “통일시각으로 본 민족음악,” 『통일문제연구』, 제12호(강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5).
- 『연합뉴스』, “北가요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2002년 5월 26일.
- 오양렬, 『북한 문예정책의 최근 양상』(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 윤재근·이상호·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I)』(서울: 고려원, 1990).
- _____, 『북한의 문화정보(II)』(서울: 고려원, 1990).
- 이미은, “김정일의 ‘음악정치’ 연구 - 형성과정과 운영실태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4).
- 이우영, 『북한문화의 수용실태조사』(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임순희, “음악과 영화를 통해 본 북한의 대중문화,” 『통일논총』, 18호(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0).
- _____,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전영선, “북한의 예술관과 남북문화 이질감 극복방안,” 『서울평양학회보』, 제1집 2호(서울평양학회, 2002. 12)
- _____,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서울: 역락, 2002).

-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조선중앙통신』, “령도자의 노래정치,” 2000년 5월 29일.
- 천현식, 『북한음악연구』(중앙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통일연구원, 『김정일 연구(II)』(서울: 통일연구원, 2001).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향후 남북문화 교류방안』(1998).
- 한상우, 『북한 음악의 실상과 허상』(서울: 신원문화사, 1989).
- 한중모,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1』(평양: 문예출판사, 1992).
- 황순희, “동지애로 충만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혁명적 음악활동,” 『조선예술』(2004년 11호).
- _____, “위대한 음악정치의 터전을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조선예술』(2004년 10호).

“The Music Politics” as a Ruling Style of the Kim Jong Il Era

Jeon, Young-sun(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Musical politics” is a unique way of Kim Jong Il’s military-first politics to combine the military and music based on “gifted artistic talent.” It is often called the politics of song because songs are at the core of musical politics. It is also called military-first music politics because it was launched with military-first politics and is regarded as a “unique way of politics for the era of military-first politics.”

Since its inception in 2000, musical politics in North Korea has been constructed as a political ideology through broadcast media. There seem to be two reasons why Kim Jong Il, who has overcome various political crises after the death of Kim Il Sung by advocating “Ruling through Bequeathed Teachings” and military-first politics, sought a new political style in the field of art: first, music can be used as a means to provide psychological consolation and hop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who have suffered from the serious economic crisis, and second, Kim Jong

Il's political career at the Department of Propaganda and Instigation can be embellished.

In conclusion, Kim Jong Il, by finding a new political style in music, seemed to achieve his desired results, such as curing the people psychologically, realizing nationalism through routinizing the revolution, and remedying internal grievances. In other words, Kim Jong Il's strategy is to accept discontent and insure diversity within the scope of the North Korean system's control by giving priority to music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people's solidarity and to remedy grievances under the weakened social control system and diminished belief in the Party.

Key words: musical politics, North Korean politics, Kim Jong Il, military-first politics